

목포 남항 갯벌 철새도래지 복원한다

환경부 '보전·복원사업' 최종 선정 11월까지 국비 4억3000만원 투입 가림막·조류 습터 등 서식환경 조성

목포 남항 일대 철새도래지를 복원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국비 사업이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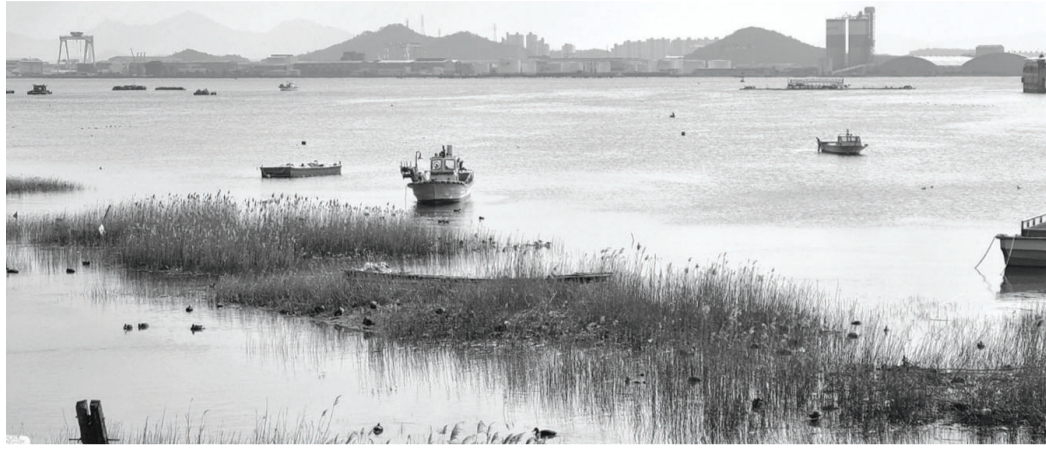
목포시는 환경부 주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인 '남항 철새도래지 보전·복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된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사업자가 낸 부담금을 활용해 훼손된 생태계 보전과 환경을 복원하는 전액 국비 사업이다.

목포시는 목포 남항 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난 2022년 해당 사업에 신청해 고배를 마셨지만, 지난해 신청에서는 대상지에 뽑혔다.

건축장(7140㎡) 19개 면적인 목포 남항 철새도래지(13만6427㎡)는 도심에서도 망원경 없이 맨눈으로 철새들의 먹이 활동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곳 인근에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체험학습과 소풍을 자주 가는 갯바위가 있다.



목포 남항 철새도래지 복원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생태 가림막과 관찰시설 등이 설치된다. 남항 갯벌 일원. <목포시 제공>

남항 갯벌에는 해마다 80여 종의 철새 4만~5만 마리가 찾아온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과 황새, 검은머리물떼새, 노랑부리저어새 등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철새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조류 보호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목포시는 도심과 인접한 남항 일대에 소음과 불빛 등 인위적 환경 노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국비 사업을 통해 도로와 도심 불빛을 차단

할 수 있는 생태 가림막과 조류 습터, 철새 탐방·관찰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환경부 승인을 받아 이들 시설을 다음 달 착공해 11월까지 마친다.

박은희 목포시 기후환경과 환경정책팀장은 "철새들에게 안전한 서식 환경을 제공해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다양한 생물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취업 면접 청년 정장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해남군 청년두드림센터

해남군이 취업 면접을 보는 청년들에게 정장을 빌려준다.

해남군 청년두드림센터는 면접 정장을 빌려주는 '청년 두드림 옷장'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대여 정장은 재킷과 바지, 치마 등으로 구성됐다.

해남청년두드림센터 누리집(haenam.go.kr/youth)을 찾아 신체 치수와 인적사항을 적어 넣으면 된다.

방문할 때 자신이 응시한 면접 일정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문자메시지·전자우편)를 제출하면 된다.

정장은 닳새간 빌릴 수 있다.

사용한 정장은 해남청년두드림센터에 직접 반납해야 한다. 센터는 반납된 정장을 깨끗하게 세탁할 계획이다.

18~49세 지역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해남군 청년두드림센터 관계자들이 면접을 보는 청년들에게 빌려줄 정장을 살펴보고 있다. <해남군 제공>

대여와 반납은 해남청년두드림센터 운영 시간(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청년 두드림 옷장으로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오는 22일부터 4월7일까지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일원에서 '2024 섬 수선화 축제'가 열린다. 지난해 신안 선도 13.4ha 일대에 핀 수선화가 장관을 이룬 모습.

섬 물들인 노란 수선화 200만 송이...신안 선도서 22일 축제 개막

다음달 7일까지 다채로운 행사

'2024 섬 수선화 축제'가 오는 22일부터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일원에서 열린다.

선도에는 13.4ha의 면적에 아를, 핼퍼넬을 포함한 17종의 수선화 구근 208만구가 심어져 200만 송이의 수선화가 섬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입장료는 일반 또는 단체는 5000원, 노란색 옷 착용 시 3000원이지만 섬주민 경제활성화를 위해 1004섬 신안 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

체험행사로 꽃·팔찌·압화잔·화관·꽃비누만들기

등과 선도시진전, 수선화 화화 사진전, 신안군 홍보관 등 전시가 펼쳐진다.

부대행사로 꽃길 버스킹, 선도장터, 푸드트럭, 수선화 관련 굶즈를 판매하는 선도 점빵 등이 열린다.

선도는 현복순 할머니(91)가 30년 전 이곳에 정착한 뒤 집 주변에 하나둘씩 심은 수선화가 어느새 선도 일대를 노랗게 물들이며 수선화 정원으로 꾸며지기 시작했다.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들은 현복순 할머니의 노력과 사랑으로 외딴섬 선도를 아름다운 선도로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다.

축제는 다음달 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선도수선화영농조합법인 박영식 대표는 "선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행정 중심의 축제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축제로 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섬 수선화 축제를 통해 신안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도 "노란색 옷 착용 시 입장료 50% 할인 정책을 통해 축제를 더 다양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섬 수선화 축제는 섬 지역 발전과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무안군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364명 입국

고용주 100여명 인권침해 예방 교육

무안군은 올해 상반기 36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농촌 일손을 보탠다고 7일 밝혔다.

상반기 입국 예정 근로자는 라오스 138명, 필리핀 102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124명 등 총 364명이다.

이들은 계절근로자 입국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처음 도입해 지난해 하반기까지 300여 명의 근로자를 받았다.

무안군은 지난 6일 승달예술회관에서 외국인 계

절근로자 고용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했다.

이날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강단에서서 교육을 했다.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인권침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문제, 피해 상담 사례 등을 다뤘다. 무안군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계절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가 일손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자 지속해서 농가 교육과 함께 점검을 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정연택 목포상의 회장 취임... "정책대안 제시하는 역할 할 것"

"지역 상공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일 25대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한 정연택(69·사진) 회장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주)대창식품을 경영하면서 목포상의 의원으로 처음 참여해 27년을 활동해 왔다.

그는 "지역의 SOC 등 현안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상공인들이 지방정부,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업이 사회구성원



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주도할 때 우리 사회가 한층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목포상공회의소가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많은 회원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취임식에서는 전임 이한철 회장(태원여객(주) 회장)에게 임기 중 노고와 지역 상공업 발전에 헌신한 데 대한 공로패 전달식도 가졌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 상담문의: 062-449-4446